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90호 [루게 제 24338호] 주제 102(2013)년 10월 17일 (목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

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자!

감사문

옥류아동병원을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운 조선인민내무군 제3154군부대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에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당의 명령지시를 높이 받들고 옥류아동병원을 세계최상급의 아동의료봉사기지로 훌륭히 일떠세운 조선인민내무군 제3154군부대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에게 뜨거운 감사와 전투적인사를 보낸다.

당창건 68돐을 맞으며 성과적으로 완공된 옥류아동병원은 최신식의료설비들과 치료시설들, 입원한 어린이들이 공부할수 있는 교실과 실내놀이장, 야외휴식터와 직송기착륙장까지 그르친 갖추어지고 모든 시설물들이 동시에 맞게 꾸러진 세상에 둘도 없는 아동의료봉사기지가이다.

혁명의 수도 평양에 세계최상급의 아동병원이 일떠서게 된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리상과 념원을 이 땅우에 현실로 펼쳐나가는 우리 당의 사상과 령도에 끝없이 충직한 우리 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당중앙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우리의 힘과 기술, 자재로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아동병원을 건설할것을 결심하고 이 영예로운 과업을 지난 기간 중요대상건설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조선인민내무군 제3154군부대에 맡겨주었다.

아동병원건설은 단순히 의료봉사기지를 일떠세우는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건축물을 하나 건설하여도 질과 속도에서 세계적수준을 돌파하며 건설의 최전성기, 최번영기를 열어나갈때 대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호전이었다.

군부대의 장병들은 우리 어린이들과 어머니들에게 아동병원을 선물로 안겨주려는 당중앙의 사상과 의도를 결사관철할 념원을 안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열한 작전을 벌려 작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7개월 남짓한 기간에 옥류아동병원을 일떠세우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세계에 자랑할만한 한 기념비적건축물로 일떠세운 아동병원의 모든 시설물들과 장식물들에는 당의 주체적인 건축미학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려는 군인건설자들의 투철한 신념과 의지가 깃들여있다.

군인건설자들은 모든 건축물들을 대상의 성격과 용도에 맞게 건설하며 선 편리성, 후 미학성의 원칙을 구현할때 대한 당의 건설사상을 철저히 관철하여 치료 및 처치실들과 수술실, 입원실들을 비롯한 아동병원의 시설물들을 환자치료와 어린이들의 생활에 최대한 편리하면서도 건축미학적으로 손색이 없게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완성하였다.

군부대의 당조직들과 지휘관들은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 립체전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방대한 아동병원건설공사를 성과적으로 해체함으로써 혁명의 지휘선원들이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박력있게 할 때 놓지 못할 난관, 절명 못할 요새가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옥류아동병원은 우리 당의 인민적보건정책의 정당성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하는 인민의 재부이며 최첨단을 향하여 돌진해나가는 주체적인 건축예술의 비약적인 발전면모를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창조물이다.

옥류아동병원이 건설됨으로써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의료봉사활동과 과학연구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킬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문수지구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더욱 일신되게 되었다.

군부대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옥류아동병원 건설을 짧은 기간에 완공함으로써 당의 사상과 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우리 혁명부대의 불패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만방에 떨치었으며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힘써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는 적

대세력들에게 준엄한 철추를 내리었다.

옥류아동병원건설을 통하여 조선인민내무군 제3154군부대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당의 사상과 정책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결사관철해나가는 산모범을 보여주었다.

옥류아동병원을 일떠세운 군부대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건설부문을 비롯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최첨단과정을 벌려 세계적수준을 통가할때 대한 당의 사상과 의도를 심장으로 접수하고 실천으로 구현한 시대의 선구자들이다.

조선인민내무군 제3154군부대와 같이 당의 사상과 정책을 앞장에서 결사옹위하며 당의 구상과 의도를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가장 정확하게, 가장 완벽하게 실현해나가는 충실한 당군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크나큰 자랑이며 이런 혁명강군이 있기에 우리 조국과 혁명이 승승장구하고 있는것이다.

우리 당의 승고한 뜻을 받들어 옥류아동병원을 세계최상급으로 일떠세운 조선인민내무군 제3154군부대 장병들의 빛나는 위훈을 우리 당과 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조선인민내무군 제3154군부대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이 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갈때 대한 당의 웅대한 구상을 받들고 옥류아동병원을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우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높은 세계를 볼때 대한 장군님의 뜻대로 높은 목표와 리상

을 가지고 투쟁하며 모든 면에서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야 합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이 땅우에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하루빨리 건설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가이다.

조선인민내무군 제3154군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우러러모시고 금수산태양궁전과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며 우리 당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기수, 척후대, 돌격대가 되어야 한다.

군부대에서는 대오안에 혁명적령군체제와 공군을 더욱 철저히 확립하며 최고사령관이 일관 명령을 내리며 폭풍처럼,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단숨에 관철하는 전투력이 강한 만능부대의 위용을 높이 떨쳐나가야 한다.

군부대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옥류아동병원 건설에서 발휘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부대가 맡은 모든 건설대상들을 우리 당의 주체적건축미학사상이 철저히 구현된 만년대계의 기념비적건축물로 일떠세우며 로동당시대 건설의 최번영기를 앞장에서 열어나가야 한다.

군부대장병들은 날로 악랄해지는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대결책동에 대처하여 고도의 격동상태를 견지하며 만일 적들이 덤벼든다면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하고 조국통일의 혁사적위업을

성취할수 있도록 싸움준비를 더욱 완벽해나가야 한다.

전체 인민들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호전의 훌륭한 본보기를 창조한 조선인민내무군 제3154군부대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의 혁명적인 투쟁기풍과 창조정신을 따라배워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과 문명국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최첨단과정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연으로 생산과 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며 건축물을 하나 일떠세우고 제품을 하나 만들어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수 있게 창조하여야 한다.

옥류아동병원 의료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어린이들에 대한 치료예방과 과학연구사업을 신속있게 하여 우리 어린이들에게 당과 국가의 보건의책이 더할 미치도록 하며 당의 은정이 깃들여있는 병원의 모든 시설물들과 설비들을 귀중히 다루고 예호관리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조선인민내무군 제3154군부대 장병들을 비롯한 전체 군대와 인민이 당중앙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년대와 년대를 뛰어넘는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킬으로써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일대 번영기를 열어나가리라라는것을 굳게 믿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제102(2013)년 10월 16일

사설

《E. C》가 열어놓은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전당,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최후 승리를 위한 총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는 《E. C》결성 87돐을 맞이하고 있다.

주제 15(1926)년 10월 1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라도대국주의 동맹을 결성하신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선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었다. 《E. C》가 결성됨으로써 우리 혁명은 뚜렷한 투쟁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자주적발전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력사의 주체로서 자기 운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나갈게 되었다.

자주, 선군, 사회주의는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적부리인 《E. C》의 리념이고 원칙이며 리상이다. 민족의 높은 존엄과 활력에 넘쳐 전진하는 우리 혁명의 밝은 전도는 《E. C》가 열어놓은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에 있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일찌기 주체혁명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고 우리 조국과 민족이 영원히 승리하며 번영해나갈수 있는 만년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최대의 경의와 가장 뜨거운 감사사를 드리고있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의 당기를 높이 들고 백전백승의 한길로 억세게 싸워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E. C)는 우리 당의 뿌리이고 선군의 시련이며 단결의 전형이고 우리 혁명의 승리의 기치입니다.》

《E. C》가 력사의 뜻을 올린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갔다.

우리 혁명이 걸어온 지난 80여 년은 《E. C》가 높이 키우준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기치높이 전진하며 승리멸치는 궁지없는 력사이다. 자체의 힘으로 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민족적독립을 이룩하며

인류의 리상사회를 일떠세울때 대한 《E. C》의 투쟁강령은 조선혁명가들의 넓이었고 승리의 표대였다. 《E. C》가 추켜든 자주성의 원칙이 우리 당건설과 활동의 드림없는 혁명적원칙이었고 《E. C》로부터 시작된 총대중시, 군사중시의 고귀한 전통은 우리 혁명의 피조기였다. 《E. C》가 내세운 웅대한 리상과 목표가 있었기에 이 땅우에 세상에 둘도 없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가 일떠설수 있었다. 《E. C》의 전통이 있어 명도자의 두리에 당과 군대와 인민이 단결 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을 이룩할수 있었고 우리 군대가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자라날수 있었으며 우리 혁명이 실패와 좌절을 모르고 오직 승리의 한길로만 전진해갈수 있었다.

세기가 바뀌고 세대로 여러번 교체되었지만 《E. C》결성의 력사적의의와 생명력은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부각되고있다. 새로운 주제 100년대에 들어선 오늘에도 우리 혁명은 《E. C》가 열어놓은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다.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는것이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으로 되고있으며 천만군민이 《E. C》의 승고한 념과 역센 기상을 그대로 이어나가고있다. 우리 혁명처럼 그 개척과 계승, 승리적전진의 전로로서 하나의 명백한 명목으로 굳건히 이어지고 력사의 온갖 풍파속에서도 자기 의 리념과 투쟁목표, 혁명정신을 변함없이 고수해나가는 혁명은 없다.

이 세상 끝까지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억세게 나아가는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에게 한 최대의 충정이며 혁명적도덕의 위대하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는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력사의 위력을 떨쳐나가는 거창한 창조와 비약의 시대이다. 지금 미제를 비롯한 력사의 반동들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치군사적작업력과 책제의 도수를 높이며 반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영연히 온갖 강권과 전횡, 압박과 봉쇄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자기의 위업에 대한 필성의 신념과 락관, 계속혁명의지를 원수님에게 윤명도 미레도 다 달고따르고있는것이 우리 조국의 참모습이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억세게 나아가는것이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으로 되고있으며 천만군민이 《E. C》의 승고한 념과 역센 기상을 그대로 이어나가고있다. 우리 혁명처럼 그 개척과 계승, 승리적전진의 전로로서 하나의 명백한 명목으로 굳건히 이어지고 력사의 온갖 풍파속에서도 자기 의 리념과 투쟁목표, 혁명정신을 변함없이 고수해나가는 혁명은 없다.

이 세상 끝까지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억세게 나아가는것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영원한 존엄과 승리, 번영을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선군조선의 새 력사를 창조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오늘 시대의 주체의 항거를 따라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필승의 기상을 온 누리에 힘있게 새겨나가는 격동적인 투쟁의 시대에 이 반만년민족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

한 강성변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나가는 거창한 창조와 비약의 시대이다.

지금 미제를 비롯한 력사의 반동들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치군사적작업력과 책제의 도수를 높이며 반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영연히 온갖 강권과 전횡, 압박과 봉쇄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자기의 위업에 대한 필성의 신념과 락관, 계속혁명의지를 원수님에게 윤명도 미레도 다 달고따르고있는것이 우리 조국의 참모습이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억세게 나아가는것이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으로 되고있으며 천만군민이 《E. C》의 승고한 념과 역센 기상을 그대로 이어나가고있다. 우리 혁명처럼 그 개척과 계승, 승리적전진의 전로로서 하나의 명백한 명목으로 굳건히 이어지고 력사의 온갖 풍파속에서도 자기 의 리념과 투쟁목표, 혁명정신을 변함없이 고수해나가는 혁명은 없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가장 철저한 자주사상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향하여 억세게 싸워나아가야 한다.

《E. C》가 내세운 자주성의 원칙은 우리 혁명의 영원한 생명선이다. 장구한 우리 혁명력사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와 기적, 우리 인민이 지닌 높은 존엄과 영광은 전결한 자주정신의 빛나는 결실이다.

《E. C》가 내세운 자주성의 원칙은 우리 혁명의 영원한 생명선이다. 장구한 우리 혁명력사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와 기적, 우리 인민이 지닌 높은 존엄과 영광은 전결한 자주정신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가장 철저한 자주사상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향하여 억세게 싸워나아가야 한다.

드시 승리한다는 신념, 조선인민이 제일이라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 우러가 가는 앞길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다는 결사의 의지가 우리 인민모두의 가슴마다에 짝 차넘쳐야 한다.

전당,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명도를 한마음한뜻으로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불면불휴의 선군명도는 우리 당과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로 되고있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희망찬 앞날에 대한 크나큰 신념과 락관을 안겨차넘치고있으며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인민군대의 뒤를 따라 새로운 전군속도를 창조해나가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E. C》의 력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어나가려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신념은 억척불변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명도를 충직하게 받드는 길에 《E. C》에서 개척된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가는 길이 있다는것을 절대 불변의 진리로 간직하고 이 세상 끝까지 원수님과 사상과 뜻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 전당과 온 사회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명도체제를 철저히 확립하며 전체 군대와 인민이 《E. C》의 열혈투사들처럼 원수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여야 한다. 언제 어디서 장구한 우리 혁명력사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와 기적, 우리 인민이 지닌 높은 존엄과 영광은 전결한 자주정신의 빛나는 결실이다.

《E. C》가 내세운 자주성의 원칙은 우리 혁명의 영원한 생명선이다. 장구한 우리 혁명력사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와 기적, 우리 인민이 지닌 높은 존엄과 영광은 전결한 자주정신의 빛나는 결실이다.

《E. C》가 내세운 자주성의 원칙은 우리 혁명의 영원한 생명선이다. 장구한 우리 혁명력사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와 기적, 우리 인민이 지닌 높은 존엄과 영광은 전결한 자주정신의 빛나는 결실이다.

상, 하나의 각오로 심장을 불태워야 한다. 전군에 백두산훈열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모든 군인들이 혁명의 막을수 없다는 결사의 의지가 우리 인민모두의 가슴마다에 짝 차넘쳐야 한다. 전당,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명도를 한마음한뜻으로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불면불휴의 선군명도는 우리 당과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로 되고있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희망찬 앞날에 대한 크나큰 신념과 락관을 안겨차넘치고있으며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인민군대의 뒤를 따라 새로운 전군속도를 창조해나가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E. C》의 력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어나가려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신념은 억척불변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명도를 충직하게 받드는 길에 《E. C》에서 개척된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가는 길이 있다는것을 절대 불변의 진리로 간직하고 이 세상 끝까지 원수님과 사상과 뜻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 전당과 온 사회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명도체제를 철저히 확립하며 전체 군대와 인민이 《E. C》의 열혈투사들처럼 원수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여야 한다. 언제 어디서 장구한 우리 혁명력사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와 기적, 우리 인민이 지닌 높은 존엄과 영광은 전결한 자주정신의 빛나는 결실이다.

《E. C》가 내세운 자주성의 원칙은 우리 혁명의 영원한 생명선이다. 장구한 우리 혁명력사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와 기적, 우리 인민이 지닌 높은 존엄과 영광은 전결한 자주정신의 빛나는 결실이다.

《E. C》가 내세운 자주성의 원칙은 우리 혁명의 영원한 생명선이다. 장구한 우리 혁명력사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와 기적, 우리 인민이 지닌 높은 존엄과 영광은 전결한 자주정신의 빛나는 결실이다.

《E. C》가 내세운 자주성의 원칙은 우리 혁명의 영원한 생명선이다. 장구한 우리 혁명력사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와 기적, 우리 인민이 지닌 높은 존엄과 영광은 전결한 자주정신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 당에서 주는 과업을 통이 큰 작전과 치밀한 지도, 완강한 실천력으로 끝까지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을 발휘하여야 한다. 경제지도와 관리에서 계급적원칙,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고수하며 올바른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가지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를 총진군대오의 전열에 세우기 위하여 뛰고 또 뛰어야 한다.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을 틀어쥐고나가 요구에 맞게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마차와 낫과 벼를 틀어쥐고 자기 고향과 마을, 자기 일터를 튼튼히 지켜나가야 한다. 《E. C》의 전통을 계승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반제국대결전에서 어떤 기적을 창조하는가를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E. C》가 열어놓은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우리 혁명을 힘차게 전진시켜나가는데서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이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

각급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사상교양사업을 세차게 벌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참신하고 실효성있는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써 우리 혁명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깊이 새겨주어 누구나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 김정은동지의 전사, 제자로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상과 위업을 무한히 충실하도록 하여야 한다.

《E. C》의 열혈투사들의 심장마다에 차넘치던 수령결사옹위정신과 미래에 대한 열렬한 사랑,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과 락관이 온 사회에 세차게 맥박치게 하여야 한다. 우리 세대뿐 아니라 후대들도 오직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끝까지 나아가며 혁명의 대를 꿰뚫어 이어나가도록 교양사업을 신속있게 짜고쳐야 한다.

《E. C》에서 시작된 우리 혁명의 력사의 온갖 풍파속에서도 꿍꿍이로 약동하며 신심드높이 전진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에 끝없이 충실하고 하나의 신념과 의지로 굳게 결속된 천만군민이 있기에 《E. C》의 력사적위업은 필승불패이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E. C》가 열어놓은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억세게 전진해나감으로써 주체혁명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해나갈수 있다.

인민들이 경제조직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박력있게 해나가야 한다. 인민군대지휘관들의 모범을 따라배

《〈E. C〉는 우리 당의 뿌리이고 선군의 시원이며 단결의 전형이고 우리 혁명의 승리의 기치입니다.》 김 정 일

선군혁명승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영원한 해불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창건기념일과 더불어 뜻깊게 맞이하는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87돐이다.

이날을 맞이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은 존엄높은 우리 당의 역사적 뿌리를 마련하시고 자주시대 선군혁명위업의 시원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경도의 정으로 차넘치고있다.

지금으로부터 87년전인 주제 15 (1926)년 10월 17일, 《E. C》의 불길로 칠칠암을 불사르며 주체혁명위업을 개척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선에 사회주의를 건설하며 세상에서 가장 으뜸가는 인민의 나라를 건설하는것을 우리 혁명의 투쟁과정으로 제시하신 역사의 그날로부터 장장 수십 년을 성취해 오신 위대한 수령님, 투쟁의 길은 그 열매이다.

조국과 민족, 혁명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심장을 뚫어놓은 10대의 우리 수령님의 빛과 불타는 혁명열이 뜨겁게 맥박치는 타도제국주의동맹, 이 땅의 찬란한 문명은 백두산절세위인의 불멸의 위인상을 우리더러 영감을 주는 조국혁명의 기수애 굽이친 위대한 역사를 가슴깊이 안아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이 격변하는 세기에 인민대중의 운명개척과 세계정지사에 흔적을 남긴 이름있는 정치가와 위인들이 많았지만 우리 수령님처럼 10대의 어린시 나이로부터 80여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탁월한 사상과 령도, 고매한 덕행으로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속에서 20세기를 반세기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의 세기로 빛내이신 절결한 수령,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혁명가는 없었다.》

돌이켜보면 역사적인 《E. C》의 결성장소는 요란한 회의장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연락도 없었다.

회전의 작은 집, 수수한 온돌방에 하나의 뜻을 품고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둘러앉은 열혈청년들이었다. 하지만 소문없이 진행된 《E. C》의 결성이 어찌하여 그토록 커다란 역사적의의를 가지게되었는가.

지금도 우리의 눈앞에는 사상과 뜻을 같이하는 새 세대 열혈청년들이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고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인 선언을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정열에 넘쳐진 모습이 숨뉘어 안겨온다.

국권도 령도도 자라도 다 빼앗겨 그야말로 적수공포로 강도 일제를 타도하고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자던 인민을 믿고 인민대중의 힘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워야 함을 고귀한 진리를 깨우쳐주며 주체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드신 10대의 청년장군들이 어버이수령님,

일제기 땅국의 설움에 몸부림치는 거레의 피라는 념원을 한몸에 지니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세력다툼과 파쟁, 사대와 교조로 얼룩진 민족주의운동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수 없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하시고 그와는 다른 길, 새로운 투쟁의 길을 찾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여주시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혁명이 나아갈 길은 선진사상의 기치에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해방을 이룩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이 잘사는 새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는것을 확신하시였다. 그리고 조선혁명을 잘하자면 혁명에서 나서서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사고

하고 판단하며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것과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각성시키고 목어 세워 투쟁으로 불리워야 한다는 신념을 굳게 다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을 내외기 위한 여러가지 준비사업에 기초하여 주제 15 (1926)년 10월 17일 화천에서 역사적인 회합을 가지시고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였다.

《E. C》를 결성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가슴속에 조국을 무으시려고 여러해 동안이나 수만리길을 걸으시며 사방에 흩어져있는 동지들을 조직에 결속하신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에 대한 생각이 사무쳐오시였다.

백가 부치고 몸이 찢기는 한이 있더라도 나라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하신 김형직선생님의 뜻을 실현하는 길에서 드디어 첫발을 떼게 되신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혁명의 당면과업과 최종목적을 밝힌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강령을 제시하시였다. 《E. C》의 강령은 역사상 처음으로 조선혁명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밝힌 혁명적강령이였으며 우리 인민을 참다운 혁명투쟁, 민족적 및 계급적해방을 위한 투쟁으로 이끌었던것을 고무추동한 전투적기치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한 위인시인 우리 수령님의 자주적인 신념의 고귀한 결정체였다.

《E. C》를 결성하시어 우리 혁명이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무슨 말로 다 전할수 있으랴. 정령 인류역사의 어느 갈피를 보

아도 우리 수령님처럼 10대에 벌써 비범한 천리해안의 예지, 거창한 포부와 리상으로 충만된 투쟁목표를 제시하시고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적전위조직을 결성하시어 자주의 기치아래 새로운 시대를 열친 위인은 찾아볼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아래 《E. C》의 기치, 자주의 가치를 높이 추켜든 조선혁명은 역사의 시련을 뚫고 영광과 승리만을 떨치며 힘차게 전진해갔다.

만속권이 뿌리박은 나무가 그 어떤 모진 광풍에도 끄떡없듯이 《E. C》의 억센 뿌리가 있어 조선로동당은 창건된 첫 시기부터 거대한 생명력을 발휘하며 백전백승의 역사를 광휘롭게 승수아올수 있었다.

《E. C》에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 때로부터 자주의 한길로 전진하여온 우리 당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적 령도아래 주체의 혁명적당으로서의 자기의 면모를 더욱 완전하게 갖추었으며 언제나 승리만을 떨쳐왔다.

일제기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첫 시기에 벌써 창공노이 휘날리는 당기발을 바라보시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전해나갈 결심을 다지신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라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E. C》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를 받아들인것은 천만군민이 《E. C》의 전통을 이어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이룩해나가는데서 결정적기치가 되었다.

우리 조국앞에 준엄한 시련이 닥쳐왔던 지난 1990년대 후반기는 주작봉마루의 혁명렬사들, 《E. C》의 산아들이 여기에 있었다. 누리에 불는 불이 되고 철새를 마는 마치기 되어 혁명의 초행길을 개척한 선구자들의 열혈의 심장들이 이 영생의 언덕에서 고동치고있으며 그들은 오늘도 여기에서 줄기차게 뚫고간 선군혁명의 레일을 뚫고있다. 《E. C》의 강령이 빛나는 현실로 펼쳐진 선군시대를 호호하고있는 투사들의 그 모습,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E. C》가 결성된 날을 추억하여 하신 말씀이 세월의 언덕을 넘어 메아리쳐온다. 《조선혁명의 레일을 뚫고 또 뚫고만만치 않은 인물이였다. 언설을 하라고 하면 언설을 하고 토론을 쓰라고 하면 토론을 쓰고 노래를 지으라

고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역사를 빛나게 계승하며 선군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열어나가기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위업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계시기에 《E. C》의 전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높은 권위와 불패의 위력이 있고 우리 조국의 앞길에 강성번영의 휘황한 전도가 펼쳐지고있는데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향도의 당을 따라 영광스러운 《E. C》의 전통을 깊이 빛내이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강 철 남



《E. C》의 전통을 빛내이며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해갈 신념과 의지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만수대 언덕에서- 본사기자 림 학 락 찍음

백전백승의 기치이라는것을 심장깊이 절감하였다. 위대한 전통은 위대한 계승으로 하여 더욱 빛난다.

오늘 우리 혁명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수해나가는데서 새로운 역사적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지난해 4월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 4차 대표자대회에서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였다.

이것은 《E. C》의 전통을 틀어쥐고

혁명의 1세대, 바로 여기에 《E. C》의 산아들의 빛나는 업적이 있으며 이로 하여 그들의 모습은 어제 도 오늘날도 선군혁명의 전열에서 빛나고있는것이다. 세대와 년대를 이어 오직 혁명의 령도자만을 받들어온 신념의 대하를 막을 힘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대성산의 주작봉마루에서 더욱 장창할 선군조선의 레일을 내다보며 어제날 《E. C》의 열혈투사들은 우리에게 말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총정대해 받드는 오늘의 《E. C》 성원이 되라! 경애하는 원수님을 받들어 산악같이 일떠선 우리 천만군민은 오늘도 열혈투사들의 그 소곡리를 신념으로 고고있다. 본사기자 백 영 III

《E. C》에서 개척된 우리 혁명이 중도에서 좌절되는가 아니면 뜻깊이 전진해나가는가 하는 류태없이 간고한 시기였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선군의 가치를 더욱 높이 드시고 주체혁명위업의 명맥을 굳건히 수호하시였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끝없이 양양한 전진을 펼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따라 투쟁해온 나날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이아말로 《E. C》의 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힘차게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첫 시기에 벌써 창공노이 휘날리는 당기발을 바라보시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전해나갈 결심을 다지신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라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E. C》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를 받아들인것은 천만군민이 《E. C》의 전통을 이어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이룩해나가는데서 결정적기치가 되었다.

우리 조국앞에 준엄한 시련이 닥쳐왔던 지난 1990년대 후반기는 주작봉마루의 혁명렬사들, 《E. C》의 산아들이 여기에 있었다. 누리에 불는 불이 되고 철새를 마는 마치기 되어 혁명의 초행길을 개척한 선구자들의 열혈의 심장들이 이 영생의 언덕에서 고동치고있으며 그들은 오늘도 여기에서 줄기차게 뚫고간 선군혁명의 레일을 뚫고있다. 《E. C》의 강령이 빛나는 현실로 펼쳐진 선군시대를 호호하고있는 투사들의 그 모습,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E. C》가 결성된 날을 추억하여 하신 말씀이 세월의 언덕을 넘어 메아리쳐온다. 《조선혁명의 레일을 뚫고 또 뚫고만만치 않은 인물이였다. 언설을 하라고 하면 언설을 하고 토론을 쓰라고 하면 토론을 쓰고 노래를 지으라

바람 세찬 화전의 언덕에서

영원한 동지

주제 15(1926)년 여름에 있는 일이다. 어느날 화성의 속의 리동무는 어버이수령님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아직 부모를 뵈지 못했으니...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리동무는 가슴이 답답하여 울었습니다. 그날 밤, 리동무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리동무를 보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당의 혁명적 전통을 이어가라. 우리 당의 혁명적 전통을 이어가라. 우리 당의 혁명적 전통을 이어가라." 리동무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뜻깊은 인사를 올린 때는 사연이 있었다. 화성의 속의 리동무는 어버이수령님에게서 고등학생사이의 축구경기시합시 상대편선수과 부딪쳐 다치려가 버렸던 그 동지를 친근같이 귀중히 여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하여 다시금 대지를 밟고 뛰어나게 되었었다. 이렇게 되어 그는 어버이수령님에게 감사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이런 뜻깊은 인사를 올린 때는 사연이 있었다. 화성의 속의 리동무는 어버이수령님에게서 고등학생사이의 축구경기시합시 상대편선수과 부딪쳐 다치려가 버렸던 그 동지를 친근같이 귀중히 여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하여 다시금 대지를 밟고 뛰어나게 되었었다. 이렇게 되어 그는 어버이수령님에게 감사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이런 뜻깊은 인사를 올린 때는 사연이 있었다. 화성의 속의 리동무는 어버이수령님에게서 고등학생사이의 축구경기시합시 상대편선수과 부딪쳐 다치려가 버렸던 그 동지를 친근같이 귀중히 여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하여 다시금 대지를 밟고 뛰어나게 되었었다. 이렇게 되어 그는 어버이수령님에게 감사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열혈투사들은 오늘도 우리앞에 있다

영원한 동지

이런 뜻깊은 인사를 올린 때는 사연이 있었다. 화성의 속의 리동무는 어버이수령님에게서 고등학생사이의 축구경기시합시 상대편선수과 부딪쳐 다치려가 버렸던 그 동지를 친근같이 귀중히 여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하여 다시금 대지를 밟고 뛰어나게 되었었다. 이렇게 되어 그는 어버이수령님에게 감사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이런 뜻깊은 인사를 올린 때는 사연이 있었다. 화성의 속의 리동무는 어버이수령님에게서 고등학생사이의 축구경기시합시 상대편선수과 부딪쳐 다치려가 버렸던 그 동지를 친근같이 귀중히 여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하여 다시금 대지를 밟고 뛰어나게 되었었다. 이렇게 되어 그는 어버이수령님에게 감사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이런 뜻깊은 인사를 올린 때는 사연이 있었다. 화성의 속의 리동무는 어버이수령님에게서 고등학생사이의 축구경기시합시 상대편선수과 부딪쳐 다치려가 버렸던 그 동지를 친근같이 귀중히 여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하여 다시금 대지를 밟고 뛰어나게 되었었다. 이렇게 되어 그는 어버이수령님에게 감사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선진사상의 탐구

영원한 동지

이런 뜻깊은 인사를 올린 때는 사연이 있었다. 화성의 속의 리동무는 어버이수령님에게서 고등학생사이의 축구경기시합시 상대편선수과 부딪쳐 다치려가 버렸던 그 동지를 친근같이 귀중히 여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하여 다시금 대지를 밟고 뛰어나게 되었었다. 이렇게 되어 그는 어버이수령님에게 감사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이런 뜻깊은 인사를 올린 때는 사연이 있었다. 화성의 속의 리동무는 어버이수령님에게서 고등학생사이의 축구경기시합시 상대편선수과 부딪쳐 다치려가 버렸던 그 동지를 친근같이 귀중히 여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하여 다시금 대지를 밟고 뛰어나게 되었었다. 이렇게 되어 그는 어버이수령님에게 감사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이런 뜻깊은 인사를 올린 때는 사연이 있었다. 화성의 속의 리동무는 어버이수령님에게서 고등학생사이의 축구경기시합시 상대편선수과 부딪쳐 다치려가 버렸던 그 동지를 친근같이 귀중히 여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하여 다시금 대지를 밟고 뛰어나게 되었었다. 이렇게 되어 그는 어버이수령님에게 감사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이런 뜻깊은 인사를 올린 때는 사연이 있었다. 화성의 속의 리동무는 어버이수령님에게서 고등학생사이의 축구경기시합시 상대편선수과 부딪쳐 다치려가 버렸던 그 동지를 친근같이 귀중히 여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하여 다시금 대지를 밟고 뛰어나게 되었었다. 이렇게 되어 그는 어버이수령님에게 감사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영원한 동지

이런 뜻깊은 인사를 올린 때는 사연이 있었다. 화성의 속의 리동무는 어버이수령님에게서 고등학생사이의 축구경기시합시 상대편선수과 부딪쳐 다치려가 버렸던 그 동지를 친근같이 귀중히 여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하여 다시금 대지를 밟고 뛰어나게 되었었다. 이렇게 되어 그는 어버이수령님에게 감사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이런 뜻깊은 인사를 올린 때는 사연이 있었다. 화성의 속의 리동무는 어버이수령님에게서 고등학생사이의 축구경기시합시 상대편선수과 부딪쳐 다치려가 버렸던 그 동지를 친근같이 귀중히 여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하여 다시금 대지를 밟고 뛰어나게 되었었다. 이렇게 되어 그는 어버이수령님에게 감사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이런 뜻깊은 인사를 올린 때는 사연이 있었다. 화성의 속의 리동무는 어버이수령님에게서 고등학생사이의 축구경기시합시 상대편선수과 부딪쳐 다치려가 버렸던 그 동지를 친근같이 귀중히 여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하여 다시금 대지를 밟고 뛰어나게 되었었다. 이렇게 되어 그는 어버이수령님에게 감사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경제개발총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합에 대하여

영원한 동지

이런 뜻깊은 인사를 올린 때는 사연이 있었다. 화성의 속의 리동무는 어버이수령님에게서 고등학생사이의 축구경기시합시 상대편선수과 부딪쳐 다치려가 버렸던 그 동지를 친근같이 귀중히 여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하여 다시금 대지를 밟고 뛰어나게 되었었다. 이렇게 되어 그는 어버이수령님에게 감사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이런 뜻깊은 인사를 올린 때는 사연이 있었다. 화성의 속의 리동무는 어버이수령님에게서 고등학생사이의 축구경기시합시 상대편선수과 부딪쳐 다치려가 버렸던 그 동지를 친근같이 귀중히 여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하여 다시금 대지를 밟고 뛰어나게 되었었다. 이렇게 되어 그는 어버이수령님에게 감사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이런 뜻깊은 인사를 올린 때는 사연이 있었다. 화성의 속의 리동무는 어버이수령님에게서 고등학생사이의 축구경기시합시 상대편선수과 부딪쳐 다치려가 버렸던 그 동지를 친근같이 귀중히 여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하여 다시금 대지를 밟고 뛰어나게 되었었다. 이렇게 되어 그는 어버이수령님에게 감사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이런 뜻깊은 인사를 올린 때는 사연이 있었다. 화성의 속의 리동무는 어버이수령님에게서 고등학생사이의 축구경기시합시 상대편선수과 부딪쳐 다치려가 버렸던 그 동지를 친근같이 귀중히 여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하여 다시금 대지를 밟고 뛰어나게 되었었다. 이렇게 되어 그는 어버이수령님에게 감사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문

영원한 동지

이런 뜻깊은 인사를 올린 때는 사연이 있었다. 화성의 속의 리동무는 어버이수령님에게서 고등학생사이의 축구경기시합시 상대편선수과 부딪쳐 다치려가 버렸던 그 동지를 친근같이 귀중히 여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하여 다시금 대지를 밟고 뛰어나게 되었었다. 이렇게 되어 그는 어버이수령님에게 감사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이런 뜻깊은 인사를 올린 때는 사연이 있었다. 화성의 속의 리동무는 어버이수령님에게서 고등학생사이의 축구경기시합시 상대편선수과 부딪쳐 다치려가 버렸던 그 동지를 친근같이 귀중히 여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하여 다시금 대지를 밟고 뛰어나게 되었었다. 이렇게 되어 그는 어버이수령님에게 감사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이런 뜻깊은 인사를 올린 때는 사연이 있었다. 화성의 속의 리동무는 어버이수령님에게서 고등학생사이의 축구경기시합시 상대편선수과 부딪쳐 다치려가 버렸던 그 동지를 친근같이 귀중히 여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하여 다시금 대지를 밟고 뛰어나게 되었었다. 이렇게 되어 그는 어버이수령님에게 감사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영원한 동지

이런 뜻깊은 인사를 올린 때는 사연이 있었다. 화성의 속의 리동무는 어버이수령님에게서 고등학생사이의 축구경기시합시 상대편선수과 부딪쳐 다치려가 버렸던 그 동지를 친근같이 귀중히 여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하여 다시금 대지를 밟고 뛰어나게 되었었다. 이렇게 되어 그는 어버이수령님에게 감사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이런 뜻깊은 인사를 올린 때는 사연이 있었다. 화성의 속의 리동무는 어버이수령님에게서 고등학생사이의 축구경기시합시 상대편선수과 부딪쳐 다치려가 버렸던 그 동지를 친근같이 귀중히 여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하여 다시금 대지를 밟고 뛰어나게 되었었다. 이렇게 되어 그는 어버이수령님에게 감사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이런 뜻깊은 인사를 올린 때는 사연이 있었다. 화성의 속의 리동무는 어버이수령님에게서 고등학생사이의 축구경기시합시 상대편선수과 부딪쳐 다치려가 버렸던 그 동지를 친근같이 귀중히 여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하여 다시금 대지를 밟고 뛰어나게 되었었다. 이렇게 되어 그는 어버이수령님에게 감사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이런 뜻깊은 인사를 올린 때는 사연이 있었다. 화성의 속의 리동무는 어버이수령님에게서 고등학생사이의 축구경기시합시 상대편선수과 부딪쳐 다치려가 버렸던 그 동지를 친근같이 귀중히 여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하여 다시금 대지를 밟고 뛰어나게 되었었다. 이렇게 되어 그는 어버이수령님에게 감사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영원한 동지

이런 뜻깊은 인사를 올린 때는 사연이 있었다. 화성의 속의 리동무는 어버이수령님에게서 고등학생사이의 축구경기시합시 상대편선수과 부딪쳐 다치려가 버렸던 그 동지를 친근같이 귀중히 여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하여 다시금 대지를 밟고 뛰어나게 되었었다. 이렇게 되어 그는 어버이수령님에게 감사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이런 뜻깊은 인사를 올린 때는 사연이 있었다. 화성의 속의 리동무는 어버이수령님에게서 고등학생사이의 축구경기시합시 상대편선수과 부딪쳐 다치려가 버렸던 그 동지를 친근같이 귀중히 여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하여 다시금 대지를 밟고 뛰어나게 되었었다. 이렇게 되어 그는 어버이수령님에게 감사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이런 뜻깊은 인사를 올린 때는 사연이 있었다. 화성의 속의 리동무는 어버이수령님에게서 고등학생사이의 축구경기시합시 상대편선수과 부딪쳐 다치려가 버렸던 그 동지를 친근같이 귀중히 여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하여 다시금 대지를 밟고 뛰어나게 되었었다. 이렇게 되어 그는 어버이수령님에게 감사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몽골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영원한 동지

이런 뜻깊은 인사를 올린 때는 사연이 있었다. 화성의 속의 리동무는 어버이수령님에게서 고등학생사이의 축구경기시합시 상대편선수과 부딪쳐 다치려가 버렸던 그 동지를 친근같이 귀중히 여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하여 다시금 대지를 밟고 뛰어나게 되었었다. 이렇게 되어 그는 어버이수령님에게 감사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이런 뜻깊은 인사를 올린 때는 사연이 있었다. 화성의 속의 리동무는 어버이수령님에게서 고등학생사이의 축구경기시합시 상대편선수과 부딪쳐 다치려가 버렸던 그 동지를 친근같이 귀중히 여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하여 다시금 대지를 밟고 뛰어나게 되었었다. 이렇게 되어 그는 어버이수령님에게 감사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이런 뜻깊은 인사를 올린 때는 사연이 있었다. 화성의 속의 리동무는 어버이수령님에게서 고등학생사이의 축구경기시합시 상대편선수과 부딪쳐 다치려가 버렸던 그 동지를 친근같이 귀중히 여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하여 다시금 대지를 밟고 뛰어나게 되었었다. 이렇게 되어 그는 어버이수령님에게 감사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이런 뜻깊은 인사를 올린 때는 사연이 있었다. 화성의 속의 리동무는 어버이수령님에게서 고등학생사이의 축구경기시합시 상대편선수과 부딪쳐 다치려가 버렸던 그 동지를 친근같이 귀중히 여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하여 다시금 대지를 밟고 뛰어나게 되었었다. 이렇게 되어 그는 어버이수령님에게 감사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몽골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영원한 동지

이런 뜻깊은 인사를 올린 때는 사연이 있었다. 화성의 속의 리동무는 어버이수령님에게서 고등학생사이의 축구경기시합시 상대편선수과 부딪쳐 다치려가 버렸던 그 동지를 친근같이 귀중히 여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하여 다시금 대지를 밟고 뛰어나게 되었었다. 이렇게 되어 그는 어버이수령님에게 감사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이런 뜻깊은 인사를 올린 때는 사연이 있었다. 화성의 속의 리동무는 어버이수령님에게서 고등학생사이의 축구경기시합시 상대편선수과 부딪쳐 다치려가 버렸던 그 동지를 친근같이 귀중히 여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하여 다시금 대지를 밟고 뛰어나게 되었었다. 이렇게 되어 그는 어버이수령님에게 감사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이런 뜻깊은 인사를 올린 때는 사연이 있었다. 화성의 속의 리동무는 어버이수령님에게서 고등학생사이의 축구경기시합시 상대편선수과 부딪쳐 다치려가 버렸던 그 동지를 친근같이 귀중히 여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하여 다시금 대지를 밟고 뛰어나게 되었었다. 이렇게 되어 그는 어버이수령님에게 감사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

영원한 동지

이런 뜻깊은 인사를 올린 때는 사연이 있었다. 화성의 속의 리동무는 어버이수령님에게서 고등학생사이의 축구경기시합시 상대편선수과 부딪쳐 다치려가 버렸던 그 동지를 친근같이 귀중히 여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하여 다시금 대지를 밟고 뛰어나게 되었었다. 이렇게 되어 그는 어버이수령님에게 감사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이런 뜻깊은 인사를 올린 때는 사연이 있었다. 화성의 속의 리동무는 어버이수령님에게서 고등학생사이의 축구경기시합시 상대편선수과 부딪쳐 다치려가 버렸던 그 동지를 친근같이 귀중히 여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하여 다시금 대지를 밟고 뛰어나게 되었었다. 이렇게 되어 그는 어버이수령님에게 감사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이런 뜻깊은 인사를 올린 때는 사연이 있었다. 화성의 속의 리동무는 어버이수령님에게서 고등학생사이의 축구경기시합시 상대편선수과 부딪쳐 다치려가 버렸던 그 동지를 친근같이 귀중히 여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하여 다시금 대지를 밟고 뛰어나게 되었었다. 이렇게 되어 그는 어버이수령님에게 감사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이런 뜻깊은 인사를 올린 때는 사연이 있었다. 화성의 속의 리동무는 어버이수령님에게서 고등학생사이의 축구경기시합시 상대편선수과 부딪쳐 다치려가 버렸던 그 동지를 친근같이 귀중히 여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하여 다시금 대지를 밟고 뛰어나게 되었었다. 이렇게 되어 그는 어버이수령님에게 감사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

영원한 동지

이런 뜻깊은 인사를 올린 때는 사연이 있었다. 화성의 속의 리동무는 어버이수령님에게서 고등학생사이의 축구경기시합시 상대편선수과 부딪쳐 다치려가 버렸던 그 동지를 친근같이 귀중히 여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하여 다시금 대지를 밟고 뛰어나게 되었었다. 이렇게 되어 그는 어버이수령님에게 감사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이런 뜻깊은 인사를 올린 때는 사연이 있었다. 화성의 속의 리동무는 어버이수령님에게서 고등학생사이의 축구경기시합시 상대편선수과 부딪쳐 다치려가 버렸던 그 동지를 친근같이 귀중히 여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하여 다시금 대지를 밟고 뛰어나게 되었었다. 이렇게 되어 그는 어버이수령님에게 감사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이런 뜻깊은 인사를 올린 때는 사연이 있었다. 화성의 속의 리동무는 어버이수령님에게서 고등학생사이의 축구경기시합시 상대편선수과 부딪쳐 다치려가 버렸던 그 동지를 친근같이 귀중히 여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하여 다시금 대지를 밟고 뛰어나게 되었었다. 이렇게 되어 그는 어버이수령님에게 감사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어머니당의 은혜로운 후대사랑속에 솟아난 최상급의 옥류아동병원

전설 같은 사랑이 낳은 또 하나의 기념비

어머니당에 대한 천만군민의 감사의 정이 뜨겁게 끓어오르는 뜻깊은 10월에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의 문수지구에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어린이들을 위한 현대적인 의료봉사기지가 새로 일떠섰다.

그 이름도 유정한 옥류아동병원, 모든 치료실들과 입원실들은 물론 요양소, 구석구석까지 당의 사랑이 뜨겁게 어리둥절한 아동병원을 돌아보느라면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어머니당의 숭고한 미례사랑이 얼마나 훌륭한 기념비적창조물을 안아왔는가를 가슴부듯이 느끼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투쟁하는 당입니다.》

어머니당의 뜨거운 사랑속에 현대적으로 일떠선 옥류아동병원, 그 이름 불려볼수록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을 꽃피우시기 위해 바쳐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헌신의 자욱이 눈앞에 어려오고 거듬거듬하시던 간곡한 당부의 말씀이 귀전에 들리오는것만 같다.

아동병원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한 인민의 병원, 손색이 없는 병원으로 꾸러진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며 직접 건설을 맡기신분은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아동병원의 설계도안과 매 방에 놓을 비품들, 유희기구, 휴게 놀이 의자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지도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도 최첨속도장조자들인 조선인민대무군 정창복소

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을 직접 파견 해주시였다.

지난 7월 어느날은 이곳 부대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에게 있어서 영원히 잊을수 없는 날이었다.

곳을날 어슬픈 건설장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게 된 부대지휘관들은 송구스러워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쏟아지는 비를 줄곧 맞으면서 옷설이 젖는것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앞장서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부대지휘관들은 격정의 눈물을 쏟고야 말았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도 입원실의 크기와 층높이도 가늠해보시였다.

순간 일군들의 가슴은 불덩이마냥 달아올랐다.

건물의 크기와 층높이를 보시고 그것을 리용할 인민들과 어린이들의 편의부터 생각하시는 우리 원수님의 숭고한 사랑의 세계가 가슴에 새겨져서였다.

영광의 그날 병원의 운영과 관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이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도 만나시게 앞서 못다 주신것이 있으신듯 일군들을 돌려보시며 우리 인민들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아까울것이 없다고, 입원실마다에 텔레비전수상기와 팽풍기들을 놓아주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도소식은 군인건설자들의 심장에 충정의 불을 달아주었다.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사명감을 자각한 군인건설자들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려 증축공사를 단 한주일동안 끝낸 기세를 늦추지 않고 결사관철의 낮과 밤을 수놓아갔다.

합리적인 건설공법을 받아들이고 리페체를 벌려 두달도 못되는 기간에 기본병동팔조공사를 끝내였으며 공사를 높은 질적수준에서 진행해나갔다.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드높이 방대한 공사를 불과 7개월 남짓한 기간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우리 어린이들의 동심과 기호에 맞는 훌륭한 병원을 일떠세우시기 위해 마음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한 사랑은 각종 놀이감 및 유희기구에도, 아동영화들과 세계명작동화집들에서 나오는 그림들로 부각장식된 병원내부의 곳곳에도 속속들이 어려웠다.

지난 10월 어느날 완공을 앞둔 아동병원건설장을 또다시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도 중앙홀에 이르시어 아크릴화 《세상에 부럽없어라》를 보시면서 이것이 진짜그림이라고, 재간들이 많이 있다고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이어 3층에 꾸러진 대수출장을 돌아보시며 수정방향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도 3층복도에 붙인 그림을 보시고 만수대창작사를 비롯한 모든 미술창작가들이 동원되어 그림을 그려내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아동병원을 어린이들의 동심에 꼭 맞게 꾸러주시기 위해 바친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고는 끝이 없었다.

그날 밤 평양미술대학의 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은 크나큰 믿음을 받

아안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도 평양미술대학이 위주가 되어 평양시안의 미술창작가들과 함께 아동병원에 그림장식을 해줄데 대한 과업을 주시면서 평양미술대학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면 오랜 화가들보다 생신하고 기발한 작성이 나올 수 있다고, 필요한 물이 구슬처럼 흐르는 문 내려보내주시겠다고 하시였다. 이

렇게 되어 평양미술대학의 교직원, 학생들과 시안의 창작가들이 아동병원으로 달려오는 력사에 잊어보지 못한 화폭이 펼쳐지게 되었다.

이날 건축물을 일떠세우는데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문제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도 대동강 맑은 물이 구슬처럼 흐르는 문수지구에 자리잡고있는 병원의 이름

을 《옥류아동병원》으로 친히 명명해 주시였다.

순간 일군들의 가슴은 새차게 높뛰었다. 세상에 이런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가 또 어디에 있었던가.

일군들의 눈에서는 뜨거울것이 줄줄이 흘러내렸다.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며 모든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이런 친이어버이사랑

에 옥류아동병원이 일떠섰다.

세상에는 옥류아동병원처럼 진단치료 및 건강증진에 쓰이는 설비들, 교육조건, 환자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설비들과 환경이 최상의 수준에서 꾸러진 아동의료봉사기지는 없다.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일떠선 옥류아동병원은 어머니 우리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낳은 세상에 전무후무한 사랑의 기념비이다.

본사기자 손영희



크나큰 믿음, 뜨거운 은성의 결정체

사랑의 명령

아동병원을 건설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어느 단위가 건설을 맡아하게 되는가는 모두의 관심사로 되었다.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결정체인 아동병원 건설을 맡아하고싶어하는 건설단위들은 얼마나 많았는가.

바로 이러한 때 아동병원을

맡아 건설할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 조선인민대무군 정창복소속부대에 내려졌다. 최첨속도장조자들이 아동병원건설을 통채로 맡게 되었다는 것이다. 최첨속도장조자들은 비롯하여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데서 전투력있는 부대의 영예를 남김없이 과시한 정

창복소속부대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의 가슴가슴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무조건 결사관철하려는 신념과 의지로 새차게 맥박쳤다.

최첨속도장조자들에게 내려진 명령, 이 명령이야말로 당이 부르는 곳서는 언제나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온 이 부대에 대한 최상급대의 믿음이었다고 후대들을 위해 내리신 사랑의 명령이었다.

명령받은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최첨속도장조자들답게 건설의 날과 달들을 수평결사옹위,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으로 수놓아가며 옥류아동병원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을만큼 짜리조를 훌륭히 일떠세웠다.

1700여점의 미술작품

옥류아동병원을 돌아보느라면 미술박물관에 온듯 한 착각이 든다. 우리 나라 아동영화들과 세계명작동화집들에서 나오는 미술작품들이 병원내부의 벽면들을 꼭 채우고있는것이다.

이 미술작품들에도 후대들을 위해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의 숭고한 사랑의 세계가 비껴 있다.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는 그림들을 한진한진 다 보아주시고 미술가력량까지 친히 보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어린이들을 위해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이어버이사랑에 떠받들려 병원내부의 벽

은 전제로 마감하니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한 건축물이 일떠설수 있었다고 그러도 만족해하지 않는 원수님, 위인의 예지와 실력은 사람들을 자서처럼 끌어당기는 법이다.

당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평양건축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제논 있는 인재로 자라난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시신 건축의 심원한 세계에 끝없는 탄복을 금할수 없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후대들에 대한 사랑은 인간이 지니고있는 사랑 가운데서도 가장 현신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이며 인류에게 바쳐지는 송가 가운데서도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송가이다.》

우리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로 높이고있었다. 건축물을 일떠세우는데서 설계와 시공, 전제는 3대요소라고 하시면서 당의 지도밑에 훌륭한 아동병원설계가 나오고 전투력있는 부대가 시공을 맡아하였으면 좋

게 병원을 최상급으로 꾸러주시며 마음써오신 우리 원수님의 후대사랑이 그대로 비껴있다.

그렇다. 병원속의 미술박물관, 이것이야말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친품으로 지니신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그대로 전하는 또 하나의 화폭인것이다.

본사기자 오철권

병력서와 출석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어린이들은 조국의 미래이고 혁명의 계승자들입니다. 어린이들을 키우는 문제는 나라와 민족, 혁명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앞으로 어린이들에게 제일 좋은것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공기의 혜택을 느끼는 사람이 몇이나 되랴.

마한가지로 오늘 우리 인민

생입니다.》

참으로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이였다.

병원의 입원실, 치료실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중학교실》, 《소학교실》, 《유치원교실》이라는 간판을 단 교실들이 아담하게 꾸러져있었다.

이곳에서 우리는 손수원동무를 비롯한 교육교양성원들 즉 병원안의 의사들이 아닌 또

매해 200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있다.

—세계적으로 매일 2만명이 상의 어린이들이 얼마든지 고칠수 있는 병이지만 치료를 받지못해 목숨을 잃고있다.

—지난 한해만 놓고보더라도 세계적으로 5살만 어린이 약 660만명이 각종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다.

...

다른 선생님들을 만났다.

자기 일에 대한 무한한 애착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교수교양준비를 해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대하니 생각은 절로 깊어졌다.

문득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의 어린이들의 실태와 관련하여 《로동신문》에 실렸던 자료들이 떠올랐다.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어린이들이 병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목숨을 잃고있다.

최근 유엔아동기금과 세계보건기구가 공동으로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폐렴과 설사란도 세계 어린이들속에서

세계 많은 나라 어린이들의 처지와 우리 나라 어린이들의 행복한 모습은 그야말로 하늘땅과도 같은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있다.

《만민복지》를 떠드는 자본주의세계에서 어린이들이 천정부지로 뛰여오르는 약값, 수술비가 없어 목숨을 잃고있을 때 우리 어린이들은 돈 한판 내지 않고 예방치료를 마음껏 받고있다.

다른 나라 녀성들이 어린이들의 출생에 뒤따르는 항시적인 불안과 근심, 절망에 싸여있을 때 우리 녀성들은 이 땅의 어머니들의 정과 사랑을 다 합쳐 자

해주었으니 우리 인민은 위대한 어머니 우리 당에 대한 감사의 노래, 충정의 노래를 심장으로 부르고 또 부른다.

병력서와 출석부, 정령 무심히 부를수 없는 말이다.

바로 이 맑속에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며 그들을 위해서는 억만금도 아끼지 않는 우리 당의 은혜로, 무상치료, 무료교육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도록 해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체도의 참모습이 뜨겁게 비껴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리정수

설비는 최신식으로, 환경은 동심에 맞게

곳곳에 이 그림도 정다운 옥류아동병원!

건물의 형식과 내용에서 주제성과 인민성의 요구를 완전히 갖춘 옥류아동병원은 세상에 없

는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이다.

옥류아동병원은 환경은 동심에 맞게, 설비는 최신식으로 갖추어져있다.

병원밖을 보자.

지능놀이장으로 탐을 쌓아놓은듯 한 6층짜리 병원건물은 동심에 맞는 건축미를 느끼게 하고 평양산천과 마주한 병원의

모습은 마치 어머니품에 안긴 아기와도 같이 따뜻한 정과 아늑한감을 지어낸다.

건물주변에는 푸른 잔디가 주 단처럼 펼쳐져있고 동심에 맞는

각이한 주제의 조각상들과 분수도 있다.

병원의 내부는 또 어떠한가. 자동차를 통과하여 현관에 들어서면 저도모르게 《아!》하는 탄성이 터져나온다.

실내의 조명등에서 비치는 빛을 받아 거울처럼 알른거리의 중앙홀의 연미색바닥 타일, 1층과 2층사이가 판통된 중앙홀에서 울러다보면 2층천장에서 꽃잎모양의 각종 색조명등들이 은은한 빛을 뿌리며 마치 동화세계에 들어선듯 하다. 내 조국의 푸른 하늘아래서 마음껏 뛰여노는 아이들을 형상한

아크릴화 《세상에 부럽없어라》가 황홀경을 더해준다. 모든 벽들은 우리 나라 아동영화들과 세계명작동화집들에서 나오는 그림들로 딱 차있다.

1층에는 여러 치료실들과 함께 꽃상점까지 있으며 2층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실내놀이장들이 훌륭히 꾸러져있다.

병원의 여러곳에 꾸러진 실내놀이장들과 휴식장에는 미끄럼틀을 비롯한 놀이설비와 기구들이 일식으로 갖추어져있으며 다양한 색깔로 장식된 폭신한 의자들이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게 꾸며져있다.

옥류아동병원은 치료설비의 수준으로 볼 때에도 세계에 내놓고도 당당히 자랑할만한 병원이다.

6층까지 전개되어있는 모든 치료실, 검사실, 입원실들마다에는 침단의료설비들이 그르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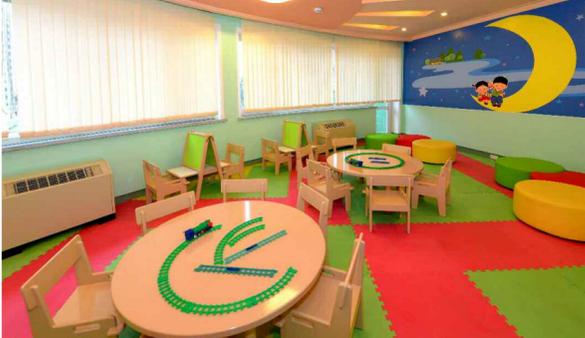
갖추어져있고 수술실들은 무균화, 무진화가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고있다.

어린이들에 대한 치료가 매 파벌로 세분화되어있으며 한번 일원한 어린이에 대해서는 일체 모든 검사를 요구하는대로 받게 된다.

벌리 지방에서 환자들을 후송해올수 있게 마련된 직승기착륙장이며 식당, 야외놀이장 등 요소소,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옥류아동병원은 어린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의료봉사활동과 과학연구사업을 진행할수 있게 모든것이 훌륭히 꾸러져있다.

지금 옥류아동병원의 일군들과 의사, 간호원들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심장강이 새겨안고 당의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가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채인철



실내의 조명등에서 비치는 빛을 받아 거울처럼 알른거리의 중앙홀의 연미색바닥 타일, 1층과 2층사이가 판통된 중앙홀에서 울러다보면 2층천장에서 꽃잎모양의 각종 색조명등들이 은은한 빛을 뿌리며 마치 동화세계에 들어선듯 하다. 내 조국의 푸른 하늘아래서 마음껏 뛰여노는 아이들을 형상한



민주화를 가로막는 《유신》독재체제의 부활

1972년 10월 17일은 남조선 인민들에게 있어서 치욕스러운 날이다. 역사에 온갖 죄악을 남긴 그 저주스러운 《유신》체제가 바로 이날에 선포되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10월유신》은 박정희역도가 장기독재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강행한 정치쿠데타였다. 당시 남조선 전지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유신》독재자는 당초의 장갑차들을 내몰아 《유신》을 해산하고 일제 정치활동을 중지시키던 이어 《유신헌법》을 꾸미었다. 《유신헌법》에 의해 역도는 모든 권력수단을 편향할 권한, 《헌법》개정권, 《국민투표》권, 《긴급조치》발령권, 《계엄령》선포권, 《국외》해산권 등 무제한 권한을 틀어쥐었다. 또한 자기가 의장인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데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만들고 그 기에 한계를 두지 않는 《총선대통령제》를 내놨다.

《유신》독재자는 인민들의 지향을 가로막고 장기집권을 실현하기 위해 그 어떤 야행도 서슴지 않았다.

피비린내나는 《유신》체제하에서 그에 조금이라도 반항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가혹한 탄압의 대상이 되어 억울한 생애를 당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는 중생기적인 고문도 조차된 술한 《간첩단사건》에 의해 억압되어 있는 무고한 민주인사들과 청년학생들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던가.

무시로 발동되는 《비상계엄령》, 《위수령》, 《비상사태》, 《긴급조치》는 물론 정치불복, 정치유괴, 방첩살인, 방범주간, 방학차적출운동, 방학차적출운동 등으로 남조선인민들은 어느 하루도 공포 없이 날 지내지 않았다. 친구를 만나면 점성으로, 술을 나누면 모의한것으로, 악수를 하면 비밀약속으로 간주되어 재판도 없이 죽결심판되었으므로 《베고과

못살겠다.》는 말 한마디에 《불온분자》라는 딱지가 붙어 고문을 받아야 하고 집에 도적이 들었다고 신고하여도 류언 비어류포죄에 걸려 옥고를 치르는 일까지 벌어졌다. 남조선에서 《보안법》을 《로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생겨났듯이 이때부터이며 《유신》독재자를 새가 어떻게 우느냐 하는 물음에 《책》한다 해도 죽이고 《책》한다 해도 잡아죽인 중세의 폭군에 비견되다 바로 이때부터이다. 《유신》과독재는 남조선전체를 그야말로 철창없는 감옥으로, 폭압의 판무장으로 만들었다.

《유신》독재자는 외세에게 빌붙어 민족의 리익을 장거리 팔아먹는것도 서슴지 않았다. 더우기 외세의 비호밑에 민족본질을 영구화하기 위해 발악한것은 역도가 민족앞에 저지른 가장 엄청난 죄악중의 하나이다. 《유신》독재자는 북과 남이 채택한 7.4 공동성명에 대해 《중요장한것은 우리의 운명을 맡길수 없다.》라고 고이면서 성명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그것을 휴지장으로 만들고 외세와 야합하여 북남사이의 대결과 북침전쟁소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었다. 한편 우리 민족을 영원히 분열시킬 흉계밑에 군사분계선일대에 공로리드장벽을 구축하는 반공일당등을 서슴없이 강행하였다.

참으로 온갖 죄악으로 얼룩진 《유신》독재자의 어지러운 과거사에 대해 다 렬거하지 않을 수 없다. 피비린 《유신》독재는 남조선인민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아물수 없는 원한을 남겨놓았다.

그런데 북민은 오늘 남조선에서 그 저주스러운 악몽의 세월이 현실로 재현되고있는것이다. 집권전부러 《10월유신》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뇌가리며 《유신》독재시대의 죄악을 공공연히 찬미하던 보수세력은 집권하자마자 《유신》독재자의 본래대로 남조선사회를

다시다 물서리치는 과소독제의 암흑천지로 만들기를 위해 독기를 쫓고있다.

보수세당은 권력체제를 과소화하면서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에 배치되는 반인민적인 폭압정책에 악랄하게 매달리고 있다. 《정보원》을 비롯한 폭압기관의 정치사찰과 모략책동이 공공연히 감행되고 이른바 《내란음모사건》을 코에 건 무차별적인 《총복》소동과 진보민주세력파살해등이 날로 악랄해지고있다. 이로 하여 남조선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최절정에 달하고있으며 민주주의와 정의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기대와 희망은 여지없이 유린당하고있다. 남조선의 물서리치는 현실은 공포정치로 악랄해지고 과거의 《유신》독재시대를 그대로 방불케 하고있다.

민심의 저항과 요구는 이렇듯없고 이만과 독심으로 반역정책을 무자정 정당화하며 그것을 주저없이 강행실시하는 현 피조권력자의 통치수법은 독재정치로 전횡이다.

보수세당의 반인민적악용은 말미암아 오늘 남조선에서 부부부, 빈민의 사회악도 심화되고있다. 남조선의 외세의 존경정책에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여 오늘 인민생활은 도탄에 빠져있다. 교육은 시장화되고 모리간세대의 돈벌이가 가능한 되었다고 자랑하는 대학생들이 가난한 농촌을 모르고 뛰어들어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빚쟁이에 전락되고있다. 실업자들이 거리와 골목에 차넘치고 고질 생활난을 못이겨 자살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나는 속에 남조선은 자살률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보수세당의 친미사대, 동족대결정책으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적존엄은 여지없이 짓밟히고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리행의 앞길에는 커다란 난관이 가로막고있다. 남조선피해

때당은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를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핼뜼으면서 동족대결책동을 더욱 로골화하는것으로 파탄시키고말았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선제타격수단들을 남조선에 편이 끌어들이며 북침핵전쟁연습소동을 판관적으로 감행함으로써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다.

남조선의 처참한 현실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보수세력이 제정권하면 《유신》과독재가 완전히 되살아나게 될것이란 내외의 우려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피괴보수세당의 《유신》독재부활책동은 렬사의 시계바늘을 과거의 암흑시대로 되돌리는 용납 못할 반동공세이다. 《유신》독재부활책동을 저지시키지 못한다면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은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다.

남조선에서 《유신》과독재의 저주로 온 렬사가 되풀이되는것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출기차 투쟁하는 각계층 인민들에게 있어서 참을수 없는 수치로 된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피조권력세력의 《유신》독재부활책동을 한목소리로 단죄구하며서 반 《정부》투쟁의 불길을 세지게 저지하려고하고있다. 남조선에서 《정보원대선개입사건》을 폭로단죄하며 집권자가 그에 대해 책임질것을 주장하는 대중적인 초발투쟁이 지금도 계속되고있는것은 《유신》독재부활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각계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고있다.

피괴보수세당이 제아무리 발악해도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굴함없이 싸워나가는 남조선인민들의 앞길을 절대로 가로막지 못할것이다.

다함없는 칭송, 강렬한 지향

세계의 진보적정당들이 조선로동당정당의 역사적정당임을 자부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당들이 따라배워야 할 교과서로 평가하며 우리 당의 사상과 령도방법을 따라배우고 있다.

인제간가 브라질 10월 8일혁명운동 지도부는 주제사상과 조선로동당건설경험에 대한 강습을 조직진행하였다.

그후 이 운동 지도부는 중앙위원회 전회의를 열고 《브라질 10월 8일혁명운동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가는 조직》, 자부심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곳은 안전한 장소가 아니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미국이 자기의 비위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유엔 총회참가마저도 방해하고있는데 대하여 신랄히 비난하였다.

자주시대의 정치대강

위대한 사상은 세계를 움직인다. 말이 있다.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하였으며 혁명실천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은 만민들의 심장을 억 세계 틀어잡고있다. 2012년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30년전 위대한 장군님의 고전적로작들이 190여개 나라에서 60여개의 민족어나 만민의 태양으로 빛나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존함은 진보적인리유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와 행보의 상징으로, 인류의 자주위업을 힘있게 떠밀어주는 불멸의 기치로 되고 있다.

이 운동 총비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방법, 당건설과 당활동방법을 우리에게 세심히 가르쳐주셨다. 우리는 우리 운동을 조선로동당처럼 살아서 움직이는 양, 투쟁하는 당, 근로대중의 요구를 실현하는 산조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언명하였다.

메히코대통령, 페루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은 주제사상을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구현하여 당강령과 규약을 개정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자기 운동의 영예지도자로 모시기로 결정한 것이아나아메리칸인디안행동운동은 운동단체 《김정일주의 연구소》를 결성하고 주제사상에 대한 연구보급사업을 심화시켜나갔다.

조선로동당의 주제의 당건설사상과 리론, 경험은 인디아와 영국, 스페인 등을 비롯하여 아시아와 유럽에서도 급속히 전개되고있다. 이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본사기자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담화

얼마전 조선동해와 남해에서 벌어진 미국, 일본, 남조선연합해상훈련에 참가하였던 미해상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제소굴로 돌아가지 않고 12일 조선해에 기어올랐다.

미국과 피괴세력들이 조선반도수역에 핵항공모함을 끌어들이 우리를 겨냥한 전쟁발발장난을 벌린것은 값지만 이번처럼 조선동해와 남해에서 진행된 북침핵전쟁연습에 참가하고 최대일점적언언에 참가하고 최대 핵항공모함을 또다시 끌고와 전쟁연습소동을 벌린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이것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핵전쟁도발을 노린 극위험천만한 책동으로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과 피괴세력의 핵전쟁도발책동이 매우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있다.

더우기 미국과 피괴세력이 《맞춤형억제전략》이니 뭐니 하는 핵전쟁책동을 짜놓고 북침핵전쟁타격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속에서 핵항공모함을 조선반도수역의 여기저기로 끌고다니며 우리의 명해, 령공, 명토가까에서 돌아다니는 우리에 대한 로골적인 핵선제공격시도이다.

미국과 피괴세력들의 무분별한 북침핵전쟁도발기도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에는 언제 어디서 전쟁이 터질지도 일촉즉발의 위험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미국과 피괴세력이 이번 핵항공모함전진을 조선동해와 남해에 이어 서해까지 끌어들이 우리를 겨냥한 핵전쟁연습을 벌려놓은것은 그들이 떠드는 《불가침》이니, 《비핵화》니 하는것이 한갓 위선이고 기만이며 저들의 북침기도를 가려주기 위한 면사포에 불과하다는것을 그대로 드러내보인것이다.

조선현 전 사태는 조선반도에 핵전쟁위험을 몰아오고 동북아시아지역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장본인은 미국과 피괴세력이 하는것을 더욱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미국과 피괴세력들의 날로

유엔분부를 미국밖으로 이전할것을 주장

볼리비아대통령 에보 모랄레스가 최근 유엔총회 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유엔분부를 미국밖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베네수엘라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령공공파를 거부당한것을 실례로 들면서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곳은 안전한 장소가 아니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미국이 자기의 비위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유엔 총회참가마저도 방해하고있는데 대하여 신랄히 비난하였다.

여성들을 존중할대 대해 강조

인디아대통령 프라나브 무케르지가 10일 상봉식에서 여성들을 존중할대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여성들에게 존중을 주고 행복을 가하는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된다고 말하였다. 여성들을 천시하는 사회는 문명한 사회라고 말할수 없다고 하면서 그는 사회적응으로 여성들을 존중하는 기풍을 세울것을 호소하였다.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여러 나라들 협조

중국과 칠레가 4일 천문학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할대 대해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칠레-중국천문학공동연구센터가 칠레에 창설되게 된다.

한편 6일 인도네시아와 메히코는 무역, 투자 등 여러 분야에서 쌍무협정을 강화할대 대한 협정들을 맺었다. 협정들은 메히코대통령의 인도네시아방문과정에 조인되었다.

인도네시아와 인디아가 11일 무역, 투자분야에서 협조를 확대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앞서 7일 인디아와 스리랑카는 화력발전소건설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수상을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구현하여 당강령과 규약을 개정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자기 운동의 영예지도자로 모시기로 결정한 것이아나아메리칸인디안행동운동은 운동단체 《김정일주의 연구소》를 결성하고 주제사상에 대한 연구보급사업을 심화시켜나갔다.

조선로동당의 주제의 당건설사상과 리론, 경험은 인디아와 영국, 스페인 등을 비롯하여 아시아와 유럽에서도 급속히 전개되고있다. 이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본사기자

자 연 고 해

—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최근 태풍이 휩쓸어 피해가 컸다. 태풍으로 7일현재 절강성에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2180칸의 살림방이 무너졌으며 18만 3 000ha의 농경지가 못쓰게 되었다. 한편 북경성에 있는 120칸의 살림방이 파괴되고 6 000ha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다. 성들에 피해자수는 456만명에 달하였다. 피해를 가시기 위한 조지들이 취해지고있다.

— 캄보쟈에서 무더기비에 의한 큰물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큰물로 9일현재 사망자수는 20명에 주에서 104명 늘어났으며 피해자수는 약 150만명에 달하였다. 또한 25 만ha의 논이 침수되고 400여 km의 도로가 파괴되었다. 피해지역들에서 구제사업이 진행

전염병에 의한 피해

— 도미니카에서 맹구열로 인명피해가 컸다. 8일 이 나라 보건기관은 맹구열환자가 1만여명에 달하며 그중 80명이 사망하였다고 밝혔다.

— 캄보쟈에서 맹구열이 계속 퍼져 피해를 입고있다. 10일 이 나라 보건기관은 올해 들어 9월과 10월 전적으로 1만 5 900명의 맹구열환자가 발생하고 그중 45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 캄보쟈에서 결핵이 퍼져 피해를 입고있다. 최근 이 나라 보건기관이 밝힌데 의하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에 약 300명이 많은 약들에 대한 내성을 가진 결핵균이 검출된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에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브릭스나라들사이의 협조에 대해 언급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협조상이 8일 브릭스나라들사이의 협조에서 이룩된 일련의 성과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제5차 브릭스수뇌자회의에서 조인된 결정문대로 브릭스개발은행설정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고 브릭스기여리사회가 발족하는 등 그 활동에서 적지 않은 성과들이 이룩되었다고 말하였다.

브릭스는 앞으로 외교, 부정부패 및 마약대투쟁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협조를 더욱 확대발전시킬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경제장성

에티오피아에서 7월 7일에 끝난 2012-2013회계년도에 경제가 9.7% 성장하였다. 최근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 이란의 이스파하주에서 마약대투쟁을 강화하고있다. 3월 21일에 시작된 현 이란년도의

베네수엘라의 수도 까라까스



배네수엘라의 수도 까라까스

베네수엘라의 수도 까라까스는 2012-2013회계년도에 경제가 9.7% 성장하였다. 최근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 이란의 이스파하주에서 마약대투쟁을 강화하고있다. 3월 21일에 시작된 현 이란년도의

자 본 주의 나라들에서

범죄 계속 발생

미국 텍사스주의 동북부지역에서 9일 류혈적인 총기류범죄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날 정제 불명예의 범죄자가 한 살림집에 뛰어들어 사람들에게 마구 총질을 하여 4명을 무참히 살해하였다.

일본 도호에서 10월 20대의 범죄자가 한 살림집에 뛰어들어 18살 난 처녀에게 마구 칼질을 하여 중상을 입힌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인 경악을 자아냈다.

한편 이날 튀르키예의 하카리주와 이스탄불시에서 마약밀수행위들이 드러나 346kg의 헤로인이 압수되고 11명의 마약판련범들이 체포되었다.

도이쉴랜드의 인골슈타트에서 6일 40대의 범죄자가 총 총에 맞아 1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편 최근 오스트랄리아의 시드니에서 살인사건이 연속 일어나 2명의 사상자가 발생

방사능피해

일본에서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사고로 인한 방사능피해가 계속 심화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9일 도쿄전력회사는 발전소에서 판해작업을 하던 도중 판에서 방사성물질이 들어있는 71의 오염수가 흘러나와 작업을 하던 6명의 로동자가 오염되었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막대한 예산적자에 시달리고있다. 8일 이 나라 정부는 조자자료를 인용하여 8월말까지 예산적자가 936억€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영국에서 8월에 무역적자가 33억£에 달하였다. 9일 이 나라 중앙은행이 이에 대해 밝혔다.

공업생산 감소

영국에서 올해 8월에 공업생산

미국과 피괴세력들의 날로

미국과 피괴세력들의 날로 위험해지는 핵전쟁책동은 우리가 핵억제력을 보유한다는 얼마나 정정당당하였는다고 할지라도 핵보통을 더욱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하겠다는 결심만을 더 굳게 해주고있다.

우리는 평화를 바라지만 미국과 피괴세력들의 위험천만 핵전쟁도발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만일 우리의 거두어지는 경계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북침전쟁의 불길을 터치는 경우 침략자, 도발자를 무자비하게 징벌하고야말것이다.

미국과 피괴세력은 분별없는 도발이 저들의 비참한 종말을 앞당기는 자멸의 길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이 땅에 핵전쟁의 참화를 몰아오는 미국과 피괴세력들의 범죄적일인 북침전쟁도발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주제102(2013)년 10월 16일 평양

세계 여러 나라들로부터 규탄배격받는 미국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강권과 전횡, 내정간섭을 일삼는 미국에 대한 규탄배격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있다.

얼마전 베네수엘라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모로스가 자기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할것을 미국에 요구하였다. 그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쌍방간에 그 어떤 호의적인 관계도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자기 나라 정부가 미국의 판매를 절대로 재개하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지난 9월 30일 TV 방송연설에서 자기 나라 주재 미국공영외교관과 기타 2명의 대사관직원들을 추방한다는것을 선포하였다. 바로 그들이 베네수엘라의 국유기업들과 공모하여 국내전력망체계를 파괴하고 경제를 혼란시키기 위한 음모를 꾸민자들이다.

베네수엘라의무상도 미국의 주권침해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는 최근 미국이 베네수엘라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참가하기 위해 비행기와 미국정공을 통과하는것을 금지시킨데 대해 분노하고 이것은 자기 나라 주권에 대한 반복된 침해행위로 된다고 확인하였다.

베네수엘라총회의 의장도 미국의 내정간섭행위를 규탄배격하였다. 그는 미국이 베네수엘라대통령의 유엔총회참가를 가로막아나섰으며 자국주재 미국외교

대만 정권교체술에 매여달리

대만 정권교체술에 매여달리고있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을 단죄하면서 자기 나라에서의 선거가 평화롭고 자유롭고 그리고 미국이 눈독을 들이고있는 나라라고 하면서 그는 미국은 재부를 강탈하려고 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제아무리 큰 나라라고 해도 다른 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할수 없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이런리무상은 한 TV방송과의 회견에서 미국의 모순적인 태도를 신랄히 비난하였다.

그는 앞에서는 이란과의 협상을 요구하는 미국집권자가 얼마전 이라크수령에게 서방의 위협과 제재때문에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게 되었으며 미국은 이란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선택안도 락우에 제시하지 않았을것이라고 말한 사실에 대해 폭로하였다. 이것은 이란인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면서 그는 미국집권자는 모순적으로 처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집바브레대통령 로버트 지. 무가게가 유엔총회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미국과 서방의 제재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는 미국과 서방이 집바브레를 대상으로 제재를 정부전복을 노린 하나의 대외정책수단으로 써먹고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나라의 자주권과 내정간섭에 관한 유엔헌장에 위반당도 가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과 서방의 계속되는 제재책동은 집바브레의 경제에 피해를 가져다 주고 인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끼치고있다고 말하였다.

집바브레대통령은 자기 나라에

대만 정권교체술에 매여달리

대만 정권교체술에 매여달리고있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을 단죄하면서 자기 나라에서의 선거가 평화롭고 자유롭고 그리고 미국이 눈독을 들이고있는 나라라고 하면서 그는 미국은 재부를 강탈하려고 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제아무리 큰 나라라고 해도 다른 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할수 없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이런리무상은 한 TV방송과의 회견에서 미국의 모순적인 태도를 신랄히 비난하였다.

그는 앞에서는 이란과의 협상을 요구하는 미국집권자가 얼마전 이라크수령에게 서방의 위협과 제재때문에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게 되었으며 미국은 이란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선택안도 락우에 제시하지 않았을것이라고 말한 사실에 대해 폭로하였다. 이것은 이란인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면서 그는 미국집권자는 모순적으로 처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집바브레대통령 로버트 지. 무가게가 유엔총회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미국과 서방의 제재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는 미국과 서방이 집바브레를 대상으로 제재를 정부전복을 노린 하나의 대외정책수단으로 써먹고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나라의 자주권과 내정간섭에 관한 유엔헌장에 위반당도 가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과 서방의 계속되는 제재책동은 집바브레의 경제에 피해를 가져다 주고 인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끼치고있다고 말하였다.

집바브레대통령은 자기 나라에